

2015년 2월 16일 새벽정리 요약 말씀

아침기도회를 안 나온 사람은 시험에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들은 흑암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는 자는 사탄이 주관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죽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늘 들어도, 매일 그 말씀 같아도 다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무지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 무지가 있으면 시험에 들어도 모른다! 기도도 시원찮게 하면 기도하다가 또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전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은 다 ‘시험’으로 봅니다.

본론적인 말씀을 죽 내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은 시험 든 것이다.” 정도에서 벗어난 것은 시험 든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흑암과 어둠이 자기를 주관하여서 그만큼 그늘지게 하였다는 것.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이것도 농사짓는 법을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농사짓는 법을 모르면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데, 알지 못하면 계시를 해줘도 모릅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약함을 깨닫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월명동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전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하니, 죽기까지의 시험이 아니고 살기까지의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할 수 있고, 당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일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지혜를 받게 되면 10개 할 것을 1개쯤 하면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바람을 막을 때, 널판이 있으면 바람 부는 방향에 좁은 측면을 대기에 바람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넓은 면으로 가로막으니 막아 집니다. 그러니 10:1만 되겠습니까? 100:1, 1000:1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당세에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대가 다 가도록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산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

밥을 먹을 때도 지혜, 칫솔질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칫솔질할 때 잘못 닦으면 이는 이대로 썩고, 치약은 치약대로 달아나고, 잇몸은 잇몸대로 상합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다 지혜입니다. 글씨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씁니다. 100마디 하면 100마디를 다 씁니다. 집에 가서 보면 무슨 글씨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핵심만 70%를 탁탁 써서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지혜롭게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지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 읽으면 읽는 것이지, 거기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는데 “그래서 니가 미련한 거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한번만 읽어도 가슴이 뜨끔뜨끔 합니다.

지혜를 받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반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받아야 병들고 아파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못 채웠을 때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시험의 가지 수가 많은데, 그것을 다 이기는 데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받아라.”

돈으로도, 부귀로도, 영화로도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혼납니다. 열심히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저쪽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욕을 한마디라도 얻어먹습니다. “저 젊은이들 저기 가서 기도하는 것 봐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 미친놈들 또 명석이 옛날에 하듯이 하는구먼. 똑같이 꼴아들이구먼.” 이런다는 것입니다. 괜히 욕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노래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智)’자를 많이 넣어서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좀 지혜로우라고. ‘지(智)’자를 많이 넣어줍니다. ‘순’자나, ‘숙’자는 잘 안 넣어줍니다. ‘순’자 하고, ‘숙’자 하고, ‘자’자. 미자, 영자.. 이런 ‘자’자는 잘 안 씁니다.

아주 명석하고, 아주 총기 있는 이름. 아주 강하고 담대한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런 글자를 꼭 넣어줍니다. 나는 이름 자체가 명석합니다. 총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총명하고, 명석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뇌가 명석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름 지어 달라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남은 인생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혼자 화장실 갔을 때는 지혜가 필요 없잖아요?” 하는데, 지혜 없이 화장실 가보십시오. 화장실 가서 잘못해서 혼자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볼 찰 때도, 공부 가르칠 때도, 아침 기도회 할 때도 지혜! 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지혜를 못 써먹으니까 끝나지만,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 감는 데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목욕하는 데도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말씀을 주면,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씹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받았어도 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하면 지혜입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듣는 데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금은보화보다 낫다.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시중들고 모시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녕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안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교회 갔다 오다가 내가 직접 바꿨습니다. ‘달밝골’이라고 하니깐 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오다가, “달밝골? 달밝골이 뭐고 하니, 달이 밝다.. 아, 그럼”

내가 한문을 배웠는데, 한문을 900자를 배워서 씹먹은 것은 그것을 제일 먼저 씹먹었습니다. ‘월명동’으로! 달 월(月) 자, 명(明), 동(洞), 밝을 명(明), 이름이 ‘월명동’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왔더니 지금에 와서 씹먹잖아요. <월명동>으로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달밝골’ 하면 촌스럽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달밝골이라 합니다.

월명동이 이제 베들레헴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처럼 월명동이 유명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월명동’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금산에 가서 물어보면 ‘월명동’ 하면 거의 압니다. 세계 26개국까지 ‘월명동’이 번져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찮은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성경의 온전을 발견하고, 성경의 진리의 온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샘솟듯 하는 진리!

똑같이 30개론을 듣고 배웠어도, 똑같이 30개론에 순종했어도 구원과 무관합니다. 왜? 근본자를 믿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혜로워야 시험을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아니면 사탄도, 명예도, 돈도, 부귀도, 영화도 다 시험을 이길 수 없노라!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하니깐, 아니까 시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자에게는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시험도 이기고, 시험도 분별할 수가 있고, 시험이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무조건 시험도 아니고, 무조건 시험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뛰어나게 하사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고, 시험을 다스리게 해 주시고, 시험을 주관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렸는

데,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시험에 걸렸다고 하고, 그늘 들었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그늘진 데서 크게 되면 아무리 비료를 하고, 아무리 주인의 손길이 많이 가도 열매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열매 때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짝어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불행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에 전국, 그리고 온 인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에게 소생케 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잘되고 형통하며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경영과, 모든 사업과, 모든 믿고 사는 문제들과, 교역자와 따르는 모든 무리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 처리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잘되고 형통되되, 지혜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공의와 진리가 함께 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